

##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 제5과 성경을 주신 목적

[요5:39,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이다. 이번 과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종합적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위의 말씀에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인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생명이신 예수께 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생명이신 예수님께 오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연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유대인 같이 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는 성경을 주신 목적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 1.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창조주이심과 생명이심을 깨닫고 믿게 된다.

성경은 우주와 만물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해 준다.

[롬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요6:45,46]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5:39,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14: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

[요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를 경외하고 영생의 지혜를 얻게 된다. 죽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잠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렘9:23,2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시119:99,100]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100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욥4:21] 장막 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증거와 법을 지키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므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명철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

## 2. 사람들의 실상을 알게 한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의 계시를 떠나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성경을 떠나서 사람을 알려고 하면 진화론이나 신화를 만나게 될 뿐이다.

[창1:26,2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5:1,2]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시8:4,5]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고전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롬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하여 사망에 매인 존재가 되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죽는 존재이다. 죄와 사망의 본질은 성경을 떠나서는 알 수 없다.

## 3.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딤후3:15]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다는 말은 바른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구원을 외치는 종교가 많이 있다. 그런 종교의 전부가 인간의 도덕성을 기초로 구원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데는 인간이 행한 선행이 필수적 조건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경을 연구하면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다.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다.

[시119:130]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19:7,8] 여호와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마음을 비우고 정직하게 읽을 때에 읽는 사람의 눈을 밝게 하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성경을 떠나서는 이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책이 없다. 성경을 모르면서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철저히 성경을 의지해야 한다. 성경에서만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구원이란 도덕적 죄의 용서를 받아 도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도덕적 선악에 대한 문제 전에 사망과 생명의 문제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길이 오직 성경에만 있다.

#### 4.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이나 구원을 얻게 한다는 말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말과 같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참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다. 생명은 있는데 지옥의 고통 중에 그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속임수이다. 참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이 존재를 상실한 것이다.

[요5:39,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주장한다. 그런데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성경은 영생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한다. 그분이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께 오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므로 예수님께 가야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요20:30,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실상이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 생명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회복할 길을 여시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와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사람은 죽은 존재이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살아 있는 말씀이다(딤후3:16, 히 4:12, 4과에서 배움). 누구든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요5: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6: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 5. 바른 믿음을 준다.

[롬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많은 시대이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지침을 분명히 주셨건만 많

은 사람들이 목사들의 설교만 의지하여 신앙하려고 한다. 목사들이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목사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릇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므로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행17: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는 설교나 성경공부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여 들은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 6.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딤후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7절에 첫 번째 ‘온전’은 “아르티오스 ἄριος”인데 능력이 있는, 건전한 온전한 등의 뜻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두 번째 온전한은 “엑사르티조 ἐξαρτίζω”인데 준비하다, 갖추다, 완료하다는 뜻이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능력 있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한다는 말씀이다.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결과에 이른다.

[시119:9,11]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지시대로 생활할 때에 범죄하지 않게 되며 행실이 깨끗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히 준비가 된다. 말씀이 그렇게 준비하여 능력 있게 한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범죄하여 영원히 죽어 존재를 상실하게 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잘 알아서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참가하는 복을 누려야 한다.